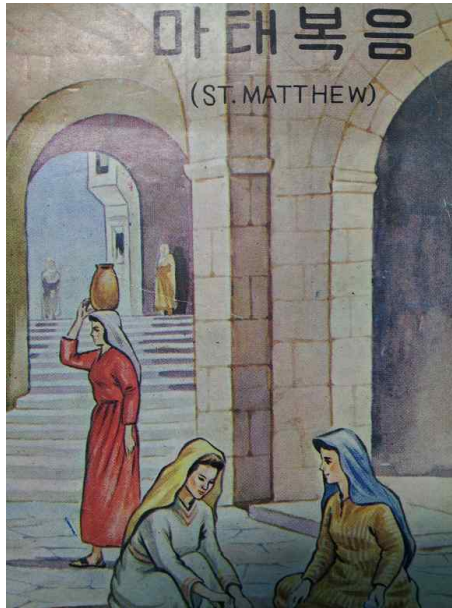


제6장 감리교회의 초기사역

동석기 전도사는 도착 즉시 조선 미(북) 감리교회 선교부를 찾아가 귀국 보고와 함께 전도사로 교적(敎籍)을 등록하였다. 이에 선교부는 동석기에게 강원도 원주지방 ‘순행목회자(巡行牧會者)’로 파송하여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역이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이민 노동자였던 동석기라는 사람이, 감리교회 전도사로 신분이 변한 다음에 최초로 맡은 사역이다. ‘순행목회자’는 어느 한 교회를 담임하여 그 교회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 [서재룡, 「환원 운동가 동석기」, 153.]

순행목회자는 선교 본부에서 정해진 행정단위의 지역을 선교구역으로 맡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는 세워져 있으나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돌보는 등의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교파형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교 초기 순행목회자 중에는 ‘전도지(傳道紙)’나 ‘쪽 복음서(단편 성경)’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용으로 나누어 주거나 판매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을 ‘권서인(勸書人, colporteur)’ 혹은 ‘매서인(賣書人)’이라고 불렀다.



마태복음 쪽 복음서(Daum 블로그 에텐나루)

초기 매서인들은 선교사들의 한글 성경 번역 사역에 조사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성경이 출간된 후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루 100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걸으며 성경을 판매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 성경 반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건 헌신자들로, 성경 보급의 선구자요 초대교회 개척의 주역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독일보』(2020.11.23.), ‘매서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시간여행(1)’.] 그러나 현재는 이런 형태의

사역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석기 전도사가 순행목회자로 사역할 당시 조선 미(북) 감리교회에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즉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조선인 목회자가 극소수였다. 그래서인지 미국 선교사들이 교회 전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주도권(主導權)을 잡고 있었다. 그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동석기의 귀국은 조선 미(북) 감리교회 조선인 목회자들의 처지에서는 매우 경사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에 대하여 기대가 컸었다고 전해진다. [기준서(1995.8.13.), 「동석기 전도자 생애와 신앙」, 한인교회, 5.]

동석기 전도사는 귀국 6개월 후인 1914년 6월 3일(수)부터 개최된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7회 ‘연회(年會, annual conference)’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이때 연회 석상에서 ‘감독(監督, bishop)’ 해리스[Merriman C. Harris, 1846.~1921.] 선교사가 동석기를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연회원들에게 신입회원으로 소개하며 인사하도록 하였다. 이 연회가 목회자로서 최초로 참석한 공적 모임인데, 회의 사무처리 중 절제(節制)와 사회개량위원회(社會改良委員會)의 서기로 선출되었다. [「제7회 조선미감리회연회록」(1914.6.)]

동석기 전도사는 연회 6일째 되는 날인 6월 8일(월)에 조선 기독교 학교에서 근대학교의 효시(嚆矢)인

사립 배재학당[培材學堂, 현 배재중·고등학교] 교사(校舍)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액 471원 중에서 100원을 기부하였다. 또한, 13명의 전도사와 함께 학습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목사안수식이 있었는데, 그는 안경록(安慶祿) 전도사와 함께 집사목사(執事牧師)로 안수를 받으므로 조선 미(북) 감리교회 소속 목사의 신분이 되었다. [「제7호 조선미감리회연회록」(1914.6.); 총독부 관보, 이력서.] 이때 동석기 목사는 노스웨스턴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났던 그로브(Grove) 선교사의 축하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해후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선교하고 있는 남·미(북) 감리교회는 다른 교파형 교회의 목회자들과는 다르게 목사 안수를 두 번이나 받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먼저는 집사목사[執事牧師, 현 준회원 목사]로 안수를 하였고, 다음으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장로목사[長老牧師, 현 정회원 목사]로 안수를 또 받았다. 동석기는 바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연회에서 먼저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이로써 하와이 노동 이민으로 인한 사탕수수농장 노동자 동석기가 목사가 되므로 목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동석기 목사는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제물포(인천) 지방으로 파송을 받았다. 이어 내리교회[內里教會, 현 예배당은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67번길 3-1에 있다.] 제6대

담임 목사로 1914년 6월 취임하여 1917년 4월까지 약 4년 동안 사역하였다. 동석기는 내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세 확장을 위해 전도에 힘쓰는 한편 예배당과 목사관을 리모델링(remodeling) 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화학당(永化學堂)의 운동장도 확장하는 등 열정적인 목회로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刷新)하였다. [내리교회 연혁; 윤세민, 『꿈의 전도자』, 179.]



내리교회 십자가형 예배당(내리교회 역사 자료실)

영화학당은 경성 이화학당[(梨花學堂, 현 이화여자중·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던 마가렛 벤젤[Magaret J. Bengel]이 제물포 여성 담당 선교사로 파송되므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1892년 4월 30일 제물포여자매일학교[Chemulpo Girl's Day School, 영

화여학당]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가 조선 최초 근대식 초등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5월에는 함께 제물포 주재 선교사로 파송된 존스(Jones)와 혼인하였으며, 이듬해인 1893년 3월 12일에는 존스가 제물포남자매일학교[Chemulpo Boy's Day School, 영화남학당]를 설립하였다. 두 학교는 1912년 8월 30일(금) 조선 총독부로부터 영화학교((永化學校)로 인가를 받았다. [영화초등학교 연혁; 『인천in』(2012.12.15.), ‘인천 근대 여성 교육을 더듬어’.]



내리교회 영화학당(내리교회 역사 자료실)

영화학교는 현재 영화학원(永化學園)으로 개편되어 영화초등학교(永化初等學校)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永化國濟觀光高等學校)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39(초)와 우각로 44(고)에 있다. 동석

기 목사는 내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동안 목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 즉 영화학교의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1917년에는 영화학교 부설로 3대 교장인 헤스[Margaret I. Hess, 헤시(惠施), 1890.~?] 선교사가 인천 최초의 유아교육(幼兒敎育) 기관인 ‘영화유치원(永化幼稚園)’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영화초등학교’.]

이렇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던 동석기 목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고향 북청을 하와이로 떠난 지 13년만인 1916년 예고(豫告)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당시 동석기의 가족들은 10년이 넘도록 동석기에 대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죽은 줄로만 알고 제사(祭祀)까지 지내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동석기가 풍채가 좋은 신사 목사의 신분으로 고향을 찾아오게 되자,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러나 동석기는 함께 기뻐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문(疑問)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그의 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게 된다.

“네가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네가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리고 생과부(生寡婦)가 된 며느리가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이 주선하여 다른 마을 할아버지에게 개가(改嫁)를 시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느리의 새 남편은 그만 병사(病死)하였고, 지금은 과부가 되어 힘들게 홀로 살고 있다.” [윤세민, 『꿈의 전도자』, 179. 참조]

이때 동석기 목사는 부모들의 얘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안에 틀어박혀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고향을 찾아온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나는 아내 앞에서 방랑 생활을 즐겼던 옛날의 일들을 회개(悔改)하면서 잘못을 고백(告白)하며 용서(容恕)를 빌려고 고향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내리교회로 가서 목회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가슴에 품고 이를 전해주기 위해 아내에게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의 무단가출과 소식 두절로 인한 결과 때문에 빚어진 일로 인해 아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비극적이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윤세민, 『꿈의 전도자』, 179. 참조]

동석기 목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치며 몹시 괴로워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결심한 후 그 결심을 집안 어른들 앞에서 단호하면서 차분하게 밝혔다.

“그 여인을 다시 제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저의 불찰(不察)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찾아가서 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또 그녀에게 만약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진정으로 새로운 부부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윤세민, 『꿈의 전도자』, 179. 참조]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온 동석기 목사의 처지에서는 마음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신분에 걸맞은 신여성과 재혼(再婚)할 수도 있는 위치(位置)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태복음 19:9)”,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린도전서 7:11)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고 아내를 찾아가기로 마

음을 먹었다.

“내 아내가 개가하여 남의 아내가 되었던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녀는 내가 없었기에 생과부(生寡婦)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나의 부모는 그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설득하여 개가시켰다. 그러므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가해서도 고생만 하며 살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 불쌍한 아내를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윤세민, 『꿈의 전도자』, 179. 참조]



내리교회 역사관에 전시된 동석기 목사

동석기 목사는 한양으로 무단가출하기 전 상태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녀를 찾아갔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내 앞에 동석기는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다. 또한, 아내의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기 위해 “여보, 어서 나와 함께 인천으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린, 동석기는 아내와 함께 집안 어른들과 부모 형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인천으로 향했다.

동석기 목사는 아내와 함께 인천으로 돌아온 후 그가 시무하는 내리교회 목사관에서 새로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이때 그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주인이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던 일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떠 올랐다. 그래서 한가지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과 함께 당부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을 보통학교(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학교(대학)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탕수수농장 주인이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근대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겠

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윤세민, 『꿈의 전도자』, 179. 참조]

동석기 목사는 1916년 4월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9회 연회에서 장로 목사로 안수를 받으므로 정회원 목사 신분으로 승격(昇格)되었다. 그리고 1년 후인 1917년 4월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10회 연회에서 내리교회를 사임하였다. 이어 경성 마포(麻浦) 삼개교회(三介教會)로 파송을 받아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1918년 6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시무하였다. [『조선 미감리교회 제9회연회록』(1916.4)] 삼개교회는 조선 후기인 1907년 11월 정동교회(현 정동제일교회)가 개척한 교회로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던 1936년 4월 마포교회(麻浦教會)로 개칭되었다. [『공덕교회100년사』(2004), 151~152.]

동석기 목사는 삼개교회(마포교회)에서 목회하는 기간에 미(북) 감리교회에서 설립한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 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로도 사역하였다. 당시 협성신학교 교장은 하디[Robert A. Hardie, 하리영(河鯉泳), 1865.~1949.] 선교사로 제2대 교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일 만세운동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신문(訊問)을 받을 때 검사로부터 ‘하디(Hardie)와는 어떤 관계이기에 서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후 동석

기가 대답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그대는 베크[S. A. Back, 백서암(白瑞岩) 혹은 배액(裴額), 1866.~1927(?), 미국 성서 공회 조선지부 총무]를 만난 뒤에 광화문(光化門) 앞에서 ‘하디(Hardie)’라고 하는 외국인을 만났는가?

[답] 만났다.

[문] 하디(Hardie)는 어떤 관계로 아는가?

[답] 그는 신학교의 교장이었고 나는 그 신학교 교수였던 관계로 알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석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14.]



하와이노동이민자 명단 동석기(Dong Suk Ke, 한국이민사박물관)